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서혜림 힘마코리아 건축사무소 대표(사진 좌)가 4월 16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방문해 세라 화이트닝 하버드 건축대학원장에게 장학금을 기부했다

한인 건축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 장학기금 기부

하버드 건축대학원 한국학생들을 위한 첫 장학기금 설립
학자금 대출의 무게, 누구보다 잘 알아...학생들 지원 위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건축가 서혜림(64) 대표가 하버드대학 건축대학원(GSD)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 서울로 돌아가 건축사사무소 힘마코리아(himma KOREA)로 다시 활동 중인

서 대표의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약 27만 달러)을 기부해 한국학생들을 위한 첫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서 대표는 4월 14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직접 방문해, 세라 화

이트닝 건축대학원장에게 장학기금의 기부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인으로 처음 하버드 건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는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커다란 부담이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전한 장학기금을 받고 학업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도 학자금 대출한 경험이 있다는 세라 화

〈전체 기사 읽기〉

이트닝 건축대학원장도 “이번 장학기금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별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표의 기부는 순간의 결정이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해온 일이었다. 지난해 하버드GSD 건축학과장으로 선임된 그레이스 나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최종적으로 ▶▶7면으로 계속

마이클리 모기지



내 집 마련·투자·재융자,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저금리 융자·재융자,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믿을 수 있는 모기지 해결사!
모기지 제일 잘 하는 마이클!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보스톤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 5월 2일 개막, 11일까지

특별 메뉴, 할인, 한정 요리까지... 보스톤에서 아시아 음식의 진수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올해로 2번째를 맞는 보스톤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Boston Asian Restaurant Week)가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그레이트 보스톤 전역에서 펼쳐진다. 아시안(AAPI) 커뮤니티 각국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2번째 해를 맞아 규모와 참여 폭 모두 크게 확대됐다.

이 기간 중에 한인들은 행사에 참여

〈전체 기사 읽기〉

하는 식당을 방문하면 특별히 준비된 고정 메뉴(prix fixe), 행사 기간에만 제공되는 한정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에는 커피숍부터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전문점, 동네 소규모 식당까지 다양한 업소들이 참여해, 보스톤 ▶▶5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원기 씨 보스톤마라톤 5K 함께 뛰어 완주

가족과 자원봉사자 함께 뛰고, 걷고, 업고 감동의 완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아조로증(Progeria)을 앓고 있는 홍원기씨(19)가 지난 4월 19일 보스톤에서 열리는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해 완주했다.

“프로제리아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홍원기씨는 이날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2명과 함께 5천K를 뛰었다. 비록 스스로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자원봉사자 송한얼씨와 이승찬씨, 그리고 동생 홍수혜씨가 그가 힘들 때는 번갈아 가며 업어 가며 코스를 뛰었다.

결승선에 도착한 홍원기 씨는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5K를 완주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달했다.

한국의 유일한 프로제리아 환자 홍원기씨가 보스톤마라톤 5K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보스톤칠드런스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친구가 된 콜롬비아미겔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들은 성인이 되는 19번째 생일을 기념해 마라톤에

〈전체 기사 읽기〉

도전기로 했으며, 동시에 이같은 도전을 통해 마라톤 경비는 물론 미겔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대회에 그의 친구 미구엘은 병세가 악화되어 참가하지 못했으나 홍원기씨는 다행히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라톤 도전은 극한의 어려움이었다. 홍씨의 아버지 홍성원 목사는 “사실 한국 나이로 스무살이 되어서 여라가지로 몸은 많이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골다공증도 진행되고 있고, 간수치도 높고 노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홍원기씨의 마라톤 도전에는 여러 한인들이 참가해 그의 마라톤 도전을 응원했다. 참가자 중의 한 명인 최지혜씨는 “기적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고 이날의 감회를 밝혔다.

한편, 홍원기씨는 22일 우스터에서 열린 레드삭스 트리플 A팀인 우스터 레드삭스 게임에 앞서 시구했



으며 동생 홍수아씨가 포수석에 앉아 원기씨의 볼을 받았다.

홍원기씨의 프로제리아 극복을 위한 여정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이를 위한 고펀미 사이트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홍원기X 미겔 고펀미 사이트 : <https://www.gofundme.com/f/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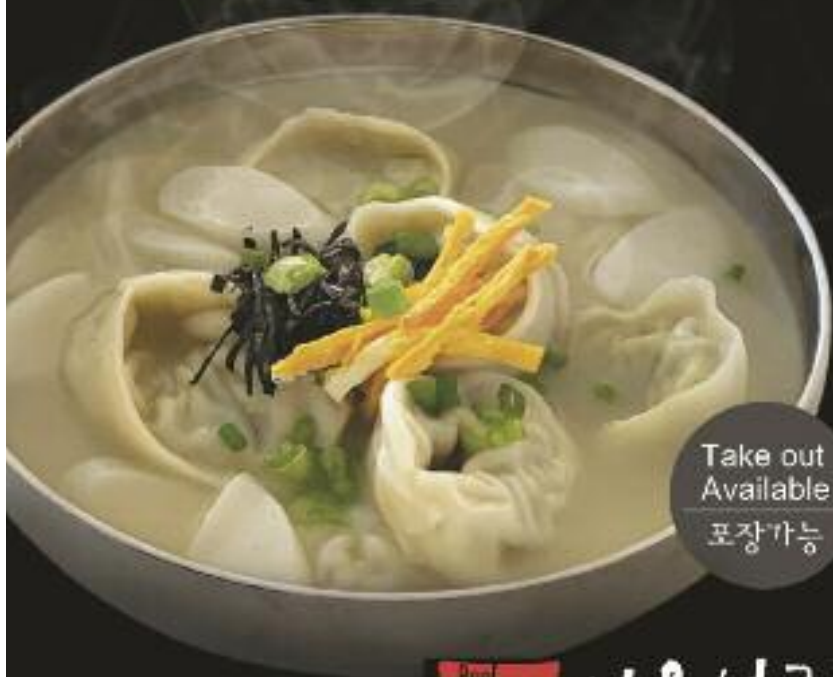
lp-wongi-and-miguel-reunite-in-boston-and-fight-progeria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주일예배 : 오후 1시(한글) / 2시 15분(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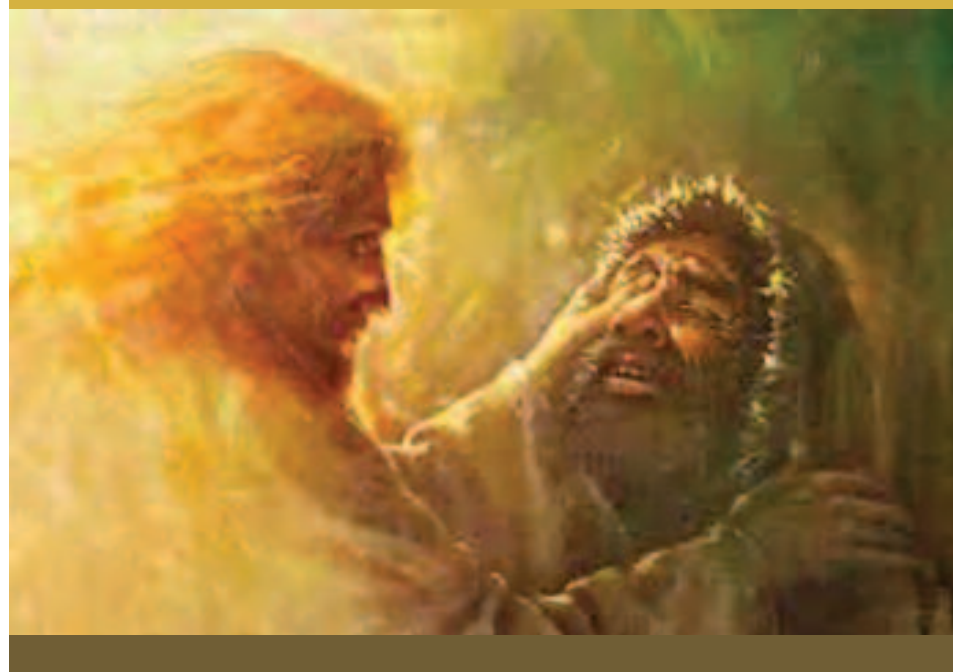
기도 모임 및 신앙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보스톤실로암교회 (Siloam Church of Boston)

6 Eddy Street, Waltham, MA 02453

Cell: 857-540-1904

담임 목사: 예성혜



보스톤마라톤 남자부 존 코리르, 넘어지고도 우승

존 코리르, 그의 형제 웨슬리에 이어 우승... 쉐론 로케디는 코스 신기록 수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의 독립전쟁 250주년인 2025년 129회 보스톤 마라톤대회에서 케냐의 쉐론 로케디와 존 코리르가 각각 여자부 및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로케디는 2시간 17분 22초를 기록하며 라이벌 헬렌 오비리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과거 보스톤 코스 기록을 2분 30초 단축한 신기록이다. 그는 지난해 사상 가장 근접했던 여자부 마라톤에서 오비리에게 아쉽게

〈전체 기사 읽기〉

게 우승을 내렸으나 1년만에 이를 설욕했다.

지난해 오비리는 결승선 1마일 지점에서 마지막 질주를 시도해 로케디를 따돌렸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시도를 했지만 로케디는 같은 실수를 두번 반복하지 않았다.

로케디는 “올해는 결코 나를 앞지르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질주해 앞서지 못하도록 했다.” 고 막판에 오비리를 꺾게 된 순간을 회고했다.

케냐의 존 코리르는 이날 초반 넘어지는 불운을 딛고 뉴튼 힐부터 단독으로 레이스를 이끌며 2시간 4분 45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르는 지난 2012년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웨슬리 코리르의 동생으로 지난해 4위에 입상했었다. 그러나 지난 가을 시카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코리르는 “머리속에 스치는 생각은 그대로 넘어져 있어야 하나 일어나 달려야 하나였다. 그 순간 뇌리에 일어나 달려라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 라고 그는 그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의 형 웨슬리는 동생에게 “자신을 믿는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며 격려했었다. 코리르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그의 형을 끌어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남자 휠체어부에서는 스위스의 마셀 허그가 1시간 21분 34초의 기록으로 8번째 보스톤마라톤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휠체어부에서는 미국의 수잔나 스캐로니가 1시간 35분 20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editor@bostonkorea.com



2025년 보스톤 마라톤 한국국적 169명 참가

올해 169명 등록, 150명 완주
지난해보다는 감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독립전쟁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129회 2025년 보스톤 마라톤에는 169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참가했다. 사상 최대의 193명이 참가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올해 대회는 대회 전날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나 보스톤 마라톤 당일 화씨 60도 초반의 화창한 날씨로 마라톤 경기에는 최적이었다. 총 3만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마라톤을 뛰었다.

한국 국적 선수 중 최고 기록은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임해장(34) 선수가 세운 2시간 54분 42초였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박병선 선수(50)가 2시간 57분 44초로 두번째 좋은 기록으로 완주했다,

〈전체 기사 읽기〉

세 번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혜수(33) 선수로 2시간 58분 11초를 기록했다.

한국 국적 선수 중 최고령은 올해 75세인 김진호씨(속초시 거주)였으며 최종 기록은 3시간 49초 15초로 젊은 선수들에 비해 훨씬 좋은 기록으로 최종점을 통과했다. 특히 150명의 한국 국적자 중 70세 이상인 선수가 무려 6명에 달했으며 60세 이상도 수십명으로 마라톤이 6,70대에도 일반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129회 올해 보스톤 마라톤 대회 남자부에서는 케냐의 존 코리르 선수가 2시간 4분 45초의 기록으로 우승했으며, 여자부에서는 쉐론 로케디가 2시간 17분 22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hsb@bostonkorea.com



Pine D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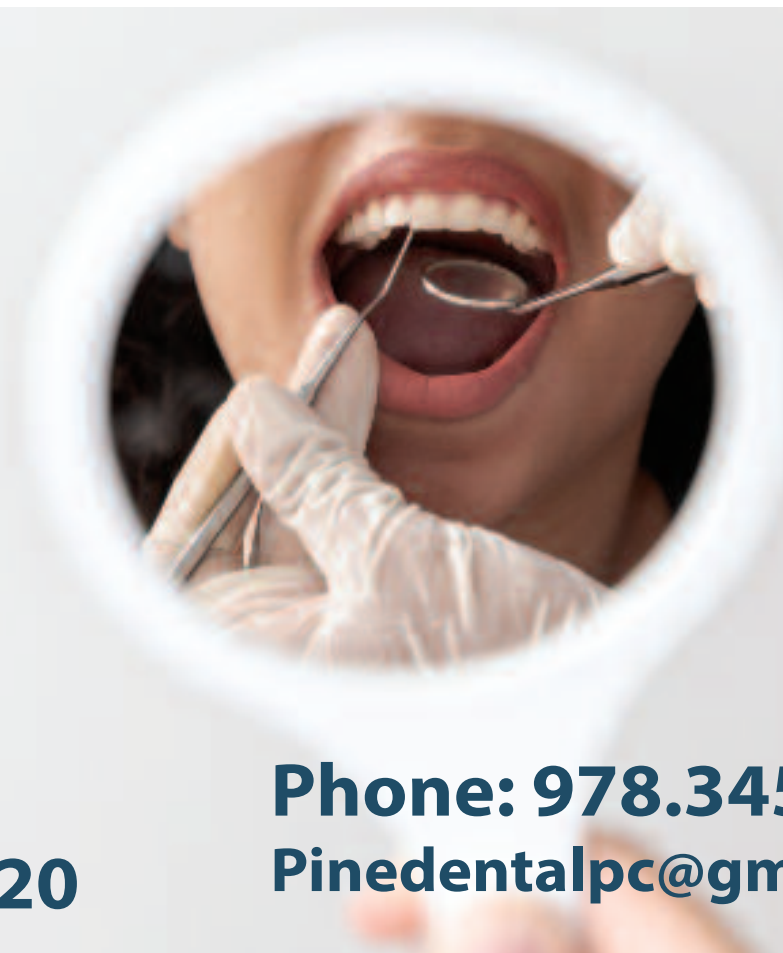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2025년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협회 연례 학술대회5월 17일 개최

차세대 한인 생명과학 인재들의 지식 교류의 장, 사전 등록 30일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중심지 보스톤 및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뉴잉글랜드 생명과학 협회 (NEBS, New England Bioscience Society)가 오는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제 33회 NEBS 연례 학술대회 (2025 33rd NEBS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NEBS는 하버드 의대(Harvard Medical School), MIT, 유매스(UMASS), 브라운대(Brown University), 커네티컷대(University of Connecticu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활동 중인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 500명 이상의 미국 현지 회원과 2,000명 이상의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봄 차세대 한인 바이오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연례 학술대회에서는 하버드 의대의 김영범 교수 (Dr. Young-Bum Kim)와 유승식 교수 (Dr. Seung-Schik Yoo)가 기조연설을 맡아,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명과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두 발표 및 포스터 세션, 한국 바이오기업의 리쿠르팅 홍보부스, 산·학·연 협력 워크숍, 고 이진아 교수 추모식, 우수발표자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NEBS 양원모 회장은 "바이오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와 협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산·학·연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바이오산업과 글로벌 인재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와의 공동 세션도 준비 중이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각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NEBS는 개인 및 기업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후원자 및 후원 기업에게는 연중 또는 학술대회 기간 중 채용설명회,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제 33회 NEBS 연례 학술대회 참가 등록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 아래 온라인 사전 등록 링크에



〈전체 기사 읽기〉

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NEBS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bs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33rd NEBS Annual Conference 안내

장소: TMEC 246 Walter Amphitheater, Harvard Medical School, 260 Longwood Ave., Boston, MA 02115

시간: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DT)

온라인 사전 등록 링크: <https://nebs-annual-conference-2025.eventbrite.com> (4월 30일 마감)

참가비: 온라인 사전등록 \$10, 현장 등록 \$20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것〉6월 강의 개설

6월 중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4주간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데이터 분석과 정보 활용의 핵심 도구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에 대한 집중 강의가 오는 6월 중 총 4주간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모델링, 조작, 실행 활용까지 다루며, Microsoft SQL Server Express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6월 3일, 10일, 17일, 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장소는 첼스포드(Chelmsford, MA)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위치는 추후 확정된다. 참가자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하며, 참가비는 총 \$120이다. 참가비는 강의 장소대여, 수업자료 준비, 간식 제공 등에 사용된다.

강의를 맡은 진태원 강사는 피닉스 비즈니스 컴퓨팅(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지난 33년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응용해온 실전 전문가다. 특히 의료보험 업계에서 Cigna

〈전체 기사 읽기〉

Healthcare(20년), United Healthcare(12년)와 협력하며 보험 청구 감사, 콜센터 평가, 고객사 설치 감사 등의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 강사는 "Kaggle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65.5%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습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이터 모델링, 디자인 도구 활용, 테이블 조인과 쿼리 작성, 데이터 조작, T-SQL 기반 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임플러 및 엑셀·웹을 통한 접근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다.

신청은 이메일 (taewonjin@phoenixb.com)을 통해 가능하며, 수강 신청 시 신청자의 직무와 데이터 관련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면 강의 준비에 도움이 된다.

ICON DENTAL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억회복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미셸 우 보스턴 시장, 재선 출범식 가져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6일 토요일 재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우 시장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트럼프 집회에서 연설한 데 이어, 사우스엔드 보스턴 아츠센터 사이코라마홀(Cyclorama)에서 열린 공식 출범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우 시장은 “지금은 훈련이 필요한 시장을 뽑을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 경험이 부족한 상대 후보 조쉬 크래프트를 겨냥했다. 그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즈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의 아들로, 올해 2월 출마를 선언했다.

크래프트는 오랜 기간 청소년 비영리단체 보이즈앤걸즈클럽에서 일했지만, 2023년에야 보스턴에 주소를 옮기고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우 시장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부유한 배경과 개발업자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래프트는 성명을 통해 우 시장이 지역 현안보다 전국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주택 가격 상승과 재산세 인상 등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판하며, 본인은 실질적

인 결과를 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4월 6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열린 ‘핸즈 오프 보스턴 (Hands Off Boston)’ 반트럼프 시 위에도 함께 참석했다. 우 시장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 데이비드 오티즈가 외쳤던 유명한 구호를 차용해 “이 도시는 우리 것이다. 우리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외쳐 대중의 환호를 이끌었다.

우 시장은 자신의 지난 임기 동안 ▲총기 폭력 최소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도심 개발 절차 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 건물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의 핵심 메시지는 “보스턴의 진보를 워싱턴의 적대적 행정부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재선 출범식에는 우 시장의 남편 코너 피와르스키, 두 아들 블레이즈와 캐스, 그리고 올해 1월 태어난 딸 미라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한편 우 시장은 현재까지 보스턴 경찰 순찰대 노조, 보스턴 시의원 7명, 주 하원의원 8명, 이스턴 보스턴 지역구의 리디아 에드워즈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아야나 프레슬리도 우 시장을 공식 지지하며 “이 시기에



우리 도시를 이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크래프트 후보는 노동자연합 22지부, 철골노조 7지부, 국제항만노동자연합, 뉴잉글랜드 해양노조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미정치력 신장연대 김 성혁 대표는 “미셸 우 시장이 지난 임기동안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서민 주택도 3,000여채를 더 건설하기로 약속하고 있어 삶의 질이 더 향상된 보스턴을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아시안 레스토랑 위크 5월 2일 개막, 11일까지

▶▶1면에 이어서

곳곳을 돌며 미식 여행을 떠나는 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평소 자주 찾지 않던 동네 식당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익숙한 맛을 색다르게 즐기며 보스턴 내 AAPI 커뮤니티를 지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아시안레스토랑위크에 앞서 4월 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케임브리지 파운드리(The Foundry)에서 킥오프 이벤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르마들렌(Lê Madeline), 루바토(Rubato), 우송로드(Wusong Road) 등 보스턴을 대표하는 아시안 레스토랑들의 요리를 미리 맛볼 수 있으며, DJ 아이시페버와 브레드맨의 라이브 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입장료는 약 \$34 정도다.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한식당이 나 아 시 안 레 스토 랑 은 <https://www.bostonasianrw.com/or-restaurants>에서 등록할 수 있

다.

이런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평소 자주 찾지 않던 동네 식당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익숙한 맛을 색다르게 즐기며 보스턴 내 AAPI 커뮤니티를 지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아시안레스토랑위크에 앞서 4월 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케임브리지 파운드리(The Foundry)에서 킥오프 이벤트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르마들렌(Lê Madeline), 루바토(Rubato), 우송로드(Wusong Road) 등 보스턴을 대표하는 아시안 레스토랑들의 요리를 미리 맛볼 수 있으며, DJ 아이시페버와 브레드맨의 라이브 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입장료는 약 \$34 정도다.

bostonkorean@hotmail.com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보스턴 주택시장,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매물은 증가 조짐

저금리 낀 집주인들 마침내 고금리 받아들이고 매물로 내놔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모기지 금리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터보스턴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신규 매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침체됐던 보스턴 주택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턴 부동산중개인협회(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 이하 GBAR)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스턴 지역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93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3% 상승했다.

여전히 집 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GBAR 관할 지역에서 새롭게 시장에 나온 단독주택은 1,300채 이상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전체 매물 수 역시 35% 늘었다.

GBAR 회장이자 리딩에 위치한 프리미어리얼티 그룹 대표인 마크 트리글리오니(Mark Triglione)는 “겨울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구매자들에게 봄 시장 진입과 함께 매물 증가 소식은 고무적”이라며 시장 회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상적으로 봄은 부동산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이기에 주택 매물의 증가는 과거에는 당

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보스턴의 봄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을 사실상 정지시켰으며, 이로 인해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매도자들도 거래를 주저해왔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매도자들이 높은 금리의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꺼려했고, 이는 매물 부족으로 이어졌다. 반면 구매자들은 한정된 매물과 높은 가격, 월별 상환금 증가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기에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6.83%로, 이는 3년 전보다 월 상환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매수, 매도 양측 모두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며 고금리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최근 매물 증가 현상은 그동안 내놓기를 꺼렸던 매도자들이 드디어 높은 모기지 금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지표가 금

〈전체 기사 읽기〉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GBAR에 따르면 3월 단독주택 실거래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으며, 주 전체의 집값을 집계하는 워렌 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기준으로는 약 4% 줄었다. 콘도미니엄 거래도 보스턴 지역에서 14% 이상, 주 전체적으로는 3% 감소했다.

봄 주택시장 침체는 그리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지속적인 가격인상으로 저소득, 중산층의 주택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도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관 워렌 그룹(Warren Group)의 캐시디 노튼(Cassidy Norton) 미디어 담당 이사는 “현 연방정부 상황에서는 향후 금리나 인플레이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예비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리글리오니 회장은 “비록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좀 힘든 과정을 겪어야겠지만 매물의 증가는 향후 주택시장에 가격 완화 기제로 작용해 과거보다는 좀더 균형 잡힌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주택건설, 10년 만에 최저치... 올해 1분기 허가 건수 38% 급감

지속적인 고금리와 어려운 건축 대출 환경 때문, 건축 규제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턴 권역의 주택 건설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연방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보스턴 지역 도시와 타운에서 승인된 민간 소유 주택 허가 건수는 2,100건에 그쳤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나 급감했다.

이번 감소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이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은 몇년간 지속되어온 고금리 기조와 어려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자금 대출 환경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모라 힐리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정치권은 주택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사추세츠의 경제에 부담을 덜고자 주택 공급 활성화 방법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번 허가 건수 감소는 보스턴 지역이 유독 심각하다. 전국 평균 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3.7% 감소에 그쳤지만, 보스턴 지역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하락 폭을 기록했다. 개발업자들은 고금리 외에도 많은 보스턴 인근 도시들이 시행하는 제한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예측이 어려운 허가 절차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대형 투자자들은 눈을 보스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보스턴시의 저소득층 주택 의무비율과 지속가능성 기준 등 규제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스턴비즈니스저널은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체 기사 읽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MBTA 커뮤니티 조닝법(MBTA Communities zoning law)을 통해 대중교통 인근 고밀도 주거지 개발을 유도했으며, 지난해에는 ADU(뒷채 또는 별채) 건축을 합법화한 ‘어포더블 홈스 법(Affordable Home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펀드도 함께 신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임명한 특별 위원회는 최근 수십 가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의회에서 얼마나 실제로 입법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보스턴부동산중개인협회(GBAR)에 따르면, 지난 3월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 단독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93만 달러로 역대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500채 수준에 그쳤다.

임대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아파트 리스트(Apartment List)의 분석에 따르면, 보스턴의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1.5% 상승해 2,240달러를 기록했다.

주택 허가 건수 2,100건은 2022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며, 3년 전보다도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공급으로는 보스턴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한인 건축가, 하버드 건축대학원에 4억원 장학기금 기부

▶▶1면에 이어서

결심을 굳히게 됐다. 보스톤에 도착한 서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러 왔다” 고 말했다.

휘트니 스톤 수석 지역 디렉터(주요기부금 담당)에 따르면, GSD에는 현재 한국학생이 전체 학생 중 네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GSD동문클럽이 만들어진 곳일 정도로 이 학교 동문이 많아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더 많은 장학 기부가 이어질 수도 있다.

휘트니 디렉터는 “현재 GSD에는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등 국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유니클로 등의 기업이 지원하는 복수의 장학금이 운영 중이다.

서대표는 “예술을 하는 건축가는 큰돈을 벌기 어렵다. 부유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버드 대학원 시절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 경험이 원동력”이었음을 밝혔다.

서대표는 1977년 도미, 뉴욕 웨스트체스터의 매스터스 고등학교를 마치고 컬럼비아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 속에 경제지원 없이 홀로 학업을 이어갔고, 하버드 GSD 재학 시절에는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 했다.

졸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가족의 뜻에 따라 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지금도 회한이 남아 있는 선택”이라고 털어놓았다.

서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힘마(himma)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의 아랍어다. 탈 힘마라는 여장군의 이름이 어원으로 한 이름은 하버드 시절 친구인 언

어학자가 지어준 것이다.

90년대 초 한국에서 회사를 출범하며 이색적인 이름을 선택했던 그에게서 거침없이 행동하는 지금의 서대표를 엿볼 수 있다. 고교 시절 유일한 아시안 여성이었던 서대표는 한국의 건축가 사이에서도 낯선 존재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외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잇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한국학생 장학금 설립도 그 일환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다영 학예연구사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옮긴다. “그는 고교 시절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컬럼비아대학,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쿠퍼유니온에서 미국 건축의 다양한 학풍을 섭렵했다. 1994년 힘마건축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다. <중략>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던 한국 건축계와 또 다른 세계의 지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건축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그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건축학교와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체계 수립에도 기여했다.”

힘마의 작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전시되고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는 여러 건축전문 잡지에 소개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국 아키텍처 레코드 뱅가드(Architectural Record Vanguard)에 선정되었다. 또한 영아시안 아키텍츠(Young Asian Architects, daab)에도 출판되었고, 독일에서 발간한 도이체 바우차이퉁(db, Deutsche Bauzeitung) 등에도 실렸다. 힘마는 영국 파이돈(Phaidon)이 발표한 21세기 세계 건축물 아틀라스(The Phaidon Atlas of 21st Century World Architecture)에 작품이 수록되기도 했다. 또한 랩핑하우스(Wrapping House)는 영국 BBC 방송에 인터뷰 및 소개되었다.

2008년 대만에서 열린 ‘넥스트 진’ 그랜드 랜드 국제건축프로젝트(Next Gene 20



하버드 건축대학원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서해림 대표



하버드 건축대학원 그레이스 나 건축학과 학과장과 하버드 스퀘어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했다

Grand Land Architecture International Project)에 세계 10개 건축가 팀 중 하나로 선정돼 초청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같은 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런던 비엔날레에 초대되었고, 내몽골의 오도스(Ordos) 프로젝트에서도 10개 세계 건축가 팀 중 하나로 선정돼 미국 건축가 나테어 테라니(Nader Tehrani)와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힘마의 작품은 한국건축가협회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미국 P/A 어워드(Progressive Architecture Award), 미국건축가협회(AIA) 뉴욕 프로젝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서대표의 대표작으로는 파주출판단지 열린책들 출판사건물, 현대고등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시청어린이집 등이 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블루크로스블루실드, 위고비 등 다이어트약물 보험 혜택 중단

급격히 치솟는 비용부담에 중단, 당뇨병자는 계속 보험 제공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상업 건강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BCBS)는 2026년 1월부터 체중 감량을 위한 처방약(GLP-1 계열 약물)의 보험 적용을 중단한다. 급격히 치솟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보스턴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BCBS는 GLP-1 계열 처방약이 당뇨병 치료 목적일 경우 계속 보험 혜택을 적용하게 되며 비만 치료 목적인 경우 제외한다. 그러나 직원 수 100명 이상의 대형 고용주는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비만치료제의 보험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어떤 플랜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직원들

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GLP-1 약물은 처음 당뇨 치료용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되면서 오젠폍(Ozempic), 위고비(Wegovy), 제프바운드(Zepbound) 등의 약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와 고용주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에 거의 재정적자의 단계까지 몰리고 있다. BCBS에 이미 맥큐 대변인은 “고용주들로부터 이 약물의 높은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BCBS 회원 300만명 중 약 5만 명이 GLP-1 계열 약을 복용 중이

며, 이 중 약 80%는 비만 치료용으로 사용했다.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약을 복용하던 이들은 월 평균 소매가격인 약 1,200달러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쉐론 고교(Sharon High School)의 역사·경제학 교사 셴 오라일리는 지난해 6월 위고비를 처방받아 75파운드를 감량하며 건강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운동도 더 하게 되고 삶의 질도 나아졌다”며 “고 밝혔다. 그는 쉐론타운에서 제공하는 BSBC 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한 달 25달러만 부담해왔다. 그러나 올 가을 아들이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적용 없이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년부터 다시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CBS에 따르면 오젠폍, 무운자로(Mounjaro), 위고비, 제프바운드, 삭센다(Saxenda) 등 GLP-1 계열 다이어트 약 5종에 대한 2024년 총 지출은 3억 달러를 넘겨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약물 지출의 20%, 연간 의료비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같은 날, 매사추세츠 주정부 공무원 46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그룹 보험 위원회(GIC)의 매튜 베노 위원장은 GLP-1 약물 사용 증가로 인해 매달 약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산이 올해 예산 마감일 6주나 앞선 5월 12일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BCBS와 주내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포인트32헬스(Point32Health)는 지난해 GLP-1 관련 지출로 인해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하버드 필그림과 텡스헬스 플랜을 운영 중인 포인트32헬스는 GLP-1 약물의 다이어트 약 처방에 대해 보험 적용

〈전체 기사 읽기〉

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덜기 위해 최근 전체 직원의 2%에 해당하는 110명을 감원한 이 보험사는 오는 7월부터 제프바운드를 자사의 독점적 체중 감량 치료 약물로 지정해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BCBS의 일부 자체 보험 운영 고객(자기부담 방식)은 이미 비만 치료 목적의 GLP-1 약물 적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소매업협회 회장 존 허스트는 “보험사가 아니라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원한다면 다른 보험사를 찾으면 되고, 모든 고용주가 무조건 감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자사 약물이 장기적으로 다른 질환 예방 효과를 통해 전체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나타나는 재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매사추세츠 건강정보분석센터에 따르면, 2023년 주 전체의 의료비 지출은 781억 달러로 전년보다 8.6% 상승했으며, 이 중 처방약 비용은 16.4%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증가한 항목으로 꼽혔다.

BCBS는 2015년부터 삭센다를, 2021년부터는 위고비를, 2023년에는 제프바운드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오젠폍과 무운자로는 당뇨병 치료용으로만 승인돼 있다. 맥큐 대변인은 “현재 약물 사용자 비중은 전체 회원의 3%에 불과하지만, 매달 2천 명 가까이 새로운 복용자가 늘고 있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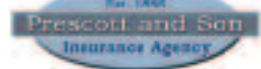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최민영
청년부 전도사: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ac1-ne.org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NLY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in



f



Instagram icon

2025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CHOLARSHIP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2,000 SCHOLARSHIPS

ACCESS TO:

- ✓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 Mentorship
-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APPLICATIONS AVAILABLE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30, 2025

APPLY NOW ➡



INTERVIEWS CONDUCTED ON A ROLLING BASIS
Email: application@kac1-ne.org



하버드대, 22억 달러 연구비 동결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국제학생 사상 검증 등 개입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이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연구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21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적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하버드를 처벌하려는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 동결에 이어, 일요일에는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삭감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제기됐다.

하버드는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해 하버드를 감압하는 조치에 맞서기 위해 역사적인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감사를 수용하고, 국제학생의 사상 검문에 동의하며, 백악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

는 등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며 하버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축소를 압박했었다.

하버드 측은 소장에서 "정부가 하버드와 다른 대학들에 제시한 거래는 명확하다. 연방정부가 대학을 직접 관리하도록 허용하든지, 아니면 의학적 진보와 과학적 발견, 혁신적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51쪽 분량의 고소장으로, 행정부의 22억 달러 연구비 동결 조치가 위헌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4월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보낸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자금 동결이 위헌적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앨런 M. 가버(Alan M. Garber) 하버드
총장은 월요일 오후 대학 구성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
이 법적 책임을 존중하며 정부의 부당한 개

입 없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실을 고수한다” 고 밝혔다.

하버드 측은 행정부가 학문 프로그램과 고용 관행, 대학 운영 구조 전반을 재편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했다며, 이는 제1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부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정 시각의 검열 조건을 자금 지원에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HHS)가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편(Title VI)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중단했다며, “이 조치는 반유대주의나 민권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밝혔다.

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1일 하버드에 보낸 두 번째 요구서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빌미로 실제로는 대학의 고용과 교육 내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연방정부는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어떻게 대응하

〈전체 기사 읽기〉

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
해야 했다” 고 강조했다.

가버 총장은 또한 반유대주의 및 이슬람 혐오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의 최종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2024년 가을 학기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발표자연과 관련해 HHS는 지난 토요일 가버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 측 법률대리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로버트 허와 윌리엄 버크가 참여한다. 로버트 허는 트럼프 대통령 첫번째 임기 때 법무부에 임명됐으며 윌리엄 버크는 트럼프 조직의 변호사로 일했었다. 또한 로프스앤그레이(Ropes & Gray)와 레토스키 켈러 콘(Lehtosky Keller Cohn)등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함께 소송을 진행한다.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일반조달청(GSA), 에너지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NASA,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등 총 9개 연방기관이다. 이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GSA는 4월 3일과 11일자 요구서에 직접 서명한 핵심 부처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자금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간 첫 법적 충돌은 아니다. 2021년에는 당시 총장이었던 로렌스 배카우가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국제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한 자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유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HUFAM
유람성형외과

유람성형외과

본원이 내는 본인부담금, 유람이 격려해드립니다!

유람 여행(항공권, 호텔, 여객선)비용 0원
의료, 생활, 관광비용 0원(1인 1박만 숙박) - 비무관지역에
포함하여 1주일까지 의료비 부담없습니다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800원
154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1800원
154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6000원
660만 원

HUFAM
성형이밴드

대형비용을 내지 않고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400원
33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254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22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55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220원
22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110원
110만 원

46 **한 자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 유람

본원이 내는 본인부담금, 유람이 격려해드립니다!

유람 여행(항공권, 호텔, 여객선)비용 0원
의료, 생활, 관광비용 0원(1인 1박만 숙박) - 비무관지역에
포함하여 1주일까지 의료비 부담없습니다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400원
33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254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22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500원
55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220원
220만 원

수술실 사용
비용(1인1박)

110원
110만 원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트럼프 '파월 해고' 물러선 이유... "베선트 · 러트닉이 말려"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성 발언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만류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장관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자 백악관의 변호사들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cause)에 근거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법적 옵션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 법에 따르면 연준 총재를 임기 전에 해임하려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해석해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파월 때리기' 행보를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조언 이후 달라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 강행 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지지분한 법적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이에 더해 파월 의장을 해임하더라도 연준의 다른 이사들이 파월 의장과 유사한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지난 21일 파월 의장을 "루저"(loser)로 칭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22일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

란다"고 말했다.

또 언론이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주제에 대해 조언하는 훌륭한 고문단이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대변인은 WSJ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월가에서도 파월 의장을 강제 해임하더라도 현재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

린 것은 물가상승률이 하락했고 경기침체 리스크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연준은 관세전쟁으로 인해 지출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도 고조된 상태로 보고 있다.

엑세스/매크로의 팀 마헤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 의장이 퇴진할 경우 시장의 반응은 끔찍할 것"이라며 "상황 악화가 너무 빠르고 심각해서 대통령이 즉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atw@yna.co.kr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좋은사람들
www.gun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우크라전 전장서 '광섬유 드론' 공포 확산...전파 방해도 안통해

수십km 광케이블 끌며 적진 돌격해 자폭...초저공 비행도 가능
우크라, 생산량 밀리자 러 유일 광케이블 공장 폭격 시도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케이블을 이용한 유선(有線) 조종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병사들에게 악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파방해가 통하지 않는 데다 기존 무선(無線) 드론과 달리 초저공으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어서 미리 알아채고 막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는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에 실처럼 가느다란 광케이블이 놓여 있거나 한데 얹혀 있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군, 혹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유선 드론이 남긴 흔적이다.

이런 드론은 보통 동체 아래에 길쭉한 원통형의 케이블 릴이 붙어있다. 돌돌 말린 채 수납된 길이 10~20km의 광케이블을 뿌리듯 풀어내면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 자폭하는 방식이다.

작년 하순 처음 전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무기는 전파로 조종하는 게 아닌 까닭에 기존의 전자전 수법으

로는 무력화할 수가 없다.

또, 일반적인 드론과는 다르게 전파가 잘 닿지 않는 장소에서도 날 수 있었기에 급속도로 사용 빈도가 늘어났다고 우크라이나군 드론 특수부대 아킬레스 연대의 유리 페도렌코 대위는 말했다.

그는 "숙련된 조종사는 이런 드론을 숲이나 줄 지어선 나무들 사이로도 날게 할 수 있다. 만약 일반 드론이라면 근처에 재송신기가 없는 한(전파) 신호가 나무에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까닭에 가로수가 많은 길을 보급로로 활용,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기존의 전법도 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페도렌코 대위는 덧붙였다.

미해군분석센터(CNA)의 드론전문가 새뮤얼 벤데트는 "이런 드론은 전자전으로 교란할 수 없기에 최초의 공격에서 적의 전자전 및 전파교란 장비를 노리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무선 일인칭 시점 드론(FPV)이 타격에 나설 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광케이



동체 하단에 연결된 광케이블을 끌며 날아가는 우크라이나군 유선 드론

블을 쓰기 때문에 적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하는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다.

다수의 유선 드론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서로 케이블이 얽힐 수 있고, 케이블 길이에 한계가 있는 등 단점을 고려해도 충분히 유용한 무기인 셈이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북동쪽 비밀 공방 등에서 유선 드론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

선 광케이블 수급량이 많은 러시아가 유선 드론 활용에서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실제 러시아군은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 대량의 유선 드론을 투입,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사란스크에 위치한 러시아 유일의 광케이블 생산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도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장거리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의 유선 드론 생산 능력을 약화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광케이블을 끊거나 태워 유선 드론의 침투를 막는 등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아킬레스 연대 관계자는 현재 생산되는 드론의 약 10분의 1가량이 유선 드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드론 전문가 벤데트가 추산한 비율과 대략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주요쟁점 다룬다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
'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서울=연합뉴스) 이도훈 기자=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사법부가 속도를 내는 이유다.

앞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 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

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제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들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leedh@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IL 25th - MAY 1st,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DAISY PIZZA FOR SESAME MOCHI BREAD

Create a delightful spring-inspired Daisy Pizza at home using the Korean Sesame Mochi Bread mix. H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깨찰빵 믹스로, 집에서 봄의 기분을 담은 데이지 피자를 만들어보세요.



Red Seedless Grape 씨없는 적포도 LB \$2.49	Bitter Melon 비터 멜론 LB \$2.79	Chinese Eggplant 중국 가지 LB \$0.99	Chinese Celery 중국 셀러리 LB \$0.99	SUNSET Grape/ Medley Tomato 선셋 방울/메들리 토마토 1.5 LB/PKG \$2.99	Persian Cucumber 페르시아인 오이 1 LB/PKG \$0.99	Yellow/Orange Bell Pepper 노란/오렌지 피망 EA \$0.99 FOR
Orri Mandarin 柑橘 LB \$2.49 BOX \$19.99	DRISCOLL'S Strawberry 드리스콜 딸기 2 LB/PKG \$6.99	Zucchini Green Squash 그린 호박 LB \$0.99	MARATHON Honey Mango 마라톤 허니 망고 BOX \$12.99	Shanghai Tip 청경채 팁 LB \$1.79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29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1.2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3.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6.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Hybrid Striped Bass 양식 농어 LB \$7.99	Fresh Carp 붕어 LB \$3.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5.99	Frozen Mackerel Pike 공치 90-110'S/LB \$2.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8.99 4.93 OZ X 6 BOWLS/BOX	H MART SMART CARD ONLY HAIO Korean Style Spicy Chewy Noodles 해오를 비빔줄면 \$3.99 15.5 OZ
H MART SMART CARD ONLY DR. CHUNG'S FOOD Vegemil Blackbean Almond & Walnut Soy milk (Pouch)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아몬드와 호두 두유 (파우치) \$9.99 6.42 FL OZ X 15 EA/PKG	H MART SMART CARD ONLY DR. CHUNG'S FOOD Vegemil Blackbean Soy milk Pouch 정식품 베지밀 검은콩 고칼슘 두유 (파우치) \$9.99 6.42 FL OZ X 15 EA/PKG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옐로우 15 LB \$12.99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청파라 녹차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11.99	PULMUONE Soupy Topokki 폴무원 국물떡볶이 SPICY/14.9 OZ 2\$9 FOR	FOODCELL Balloonflower 푸드셀 도라지 1 LB \$5.99	JINGA Sushi Pickled Radish 진가 스시 단무지 2.2 LB \$3.99
CHUNG JUNGWON Luncheon Meat 청정원 런치미트 12 OZ \$2.99	SAMPO Canned White/Yellow Peach 삼포 황도/백도 통조림 14.11 OZ \$1.99	TGF Quinoa & 10 Roasted Grains Power 태광 퀴노아 10곡 미숫가루 1.76 LB (40 STICKS/PKG) \$6.99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2\$5 FOR	K TOWN Sweet Melon Cream Crackers K TOWN 메로나 11.29 OZ 2\$5 FOR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2\$5 FOR	ORBIT Milk Classic Rice Snack 오르빗 밀크 클래식 쌀과자 \$4.99 8.47 OZ	MOCHI TOWN Plush 모찌타운 모어모어 뽀송 인형 BUNNY/POODLE/RAGDOLL -\$24.99 \$15.99 EA	CIMELAX Door Fit Grain Container 씨밀렉스 도어핏 잡곡통 IVORY/LIGHT PINK/GRAY -\$7.99 \$5.99 2050 mL EA	SAENGONG Moisture Absorber Hanger Type 생활공작소 제습제 옷걸이형 대용량 -\$2.49 \$1.99 7.05 OZ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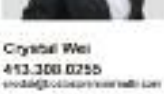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	---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켄리 김 978.494.2643 kellykim@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01 niki@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박 617.780.7635 tpark@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리 978.866.3248 jinalee@bostonpremierrealty.com	 이린주 401.538.3397 eyk@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김 617.838.0787 sarahkim@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83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혜수 김 617.538.6973 hkim@bostonpremierrealty.com	 미라 김 213.503.0387 mira@bostonpremierrealty.com	 미카 김 413.507.1402 mika@bostonpremierrealty.com	 선호태 617.913.3388 sungho@bostonpremierrealty.com
 희진 김 617.877.0387 h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8.3412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혜수 김 781.959.1214 hkim@bostonpremierrealty.com	 하연 김 617.915.1162 h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617.913.5728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404.641.9102 eunjung@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5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8.449.0117 lujia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tra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ens 978.873.0076 mjsorrens@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프리미어 리얼티 그룹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커지는 '빅텐트론'...국힘 주자들 韓대행과 단일화 기류 확산

홍준표 "韓대행 출마 시 단일화"...한동훈 "韓대행과 생각 완전히 같아"

김문수 측 "경선 승리하면 곧바로 단일화 제안...洪은 1인용 빅텐트"

안철수 "출마 반대하지만 빅텐트해야"...단일화 반대, 경선에 불리' 판단한 듯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설승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홍 후보는 24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앞서 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단일화 질문 자체에 불쾌감까지 드러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분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한대행과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협력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 나와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도 "일종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한대행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대행의 출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반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후보들의 기류가 한대행과의 단일화로 급격히 쏠리게 된 것

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사이에 '한대행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선불리 단일화에 선을 그을 경우 4명 중 2명을 뽑는 2차 경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

당내에서는 한대행이 다음 주 사퇴해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진영을 넘어서는 슈퍼 빅텐트가 절실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슈퍼 빅텐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뚜렷하게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 없이 후보들 간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이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홍 후보의 입장 선회는 김 후보가 한대행 지지율까지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입장에 진정성이나 현실성이 없다고 깎아내리면서,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김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은 MBC 라디오에서 "

홍 후보의 빅텐트는 결국 1인용 빅텐트이고, 한 후보는 아예 정치력이 없는 분"이라며 "유일하게 김 후보는 자신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한대행과 단일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대행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묻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답했다.

pc@yna.co.kr



이재명 41%...홍준표·김문수 10%, 한동훈 8%, 안철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0%,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1%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10%, 한동훈 후보 8%,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등이었다.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주자 관련 설문 보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내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hiny@yna.c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PR. 24TH - MAY 1ST, 2025



**Tokyo
Banana**

LIMIT
2

도쿄 바나나

\$10.99

1.06 LB
(8 EA/PKG)



Wok Pan

LIMIT
2

수라상 마블 궁중팬

30 CM/EA

~~\$31.99~~

32 CM/EA

~~\$33.99~~

\$17.99

\$1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Somervill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영화 '야당' 유해진 "전형적인 검사 캐릭터 틀 깨려 했죠"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고위직 캐릭터는 시켜줄 때 빨리 빨리 해야 해요. 뭘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하."

1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야당' 주연 배우 유해진은 황병국 감독으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은 마약 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브로커인 야당과 그와 공생하는 검사, 마약 밀매 조직 소탕에 모든 것을 건 경찰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그린다.

유해진은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던 이강수(강하늘 분)를 야당으로 만들어주고, 그를 이용해 검거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검사 구관희 역을 소화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유력 대선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어준 이후 강수와 마약 팀 형사 오상재(박해준)의 타깃이 되는 인물이다.

유해진은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검사 캐릭터의 틀을 깨려 했다고 강조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고 후반부에선 잡범이나 다름 바 없는 찌질한 모습도 보여준다.

"야망을 쫓아가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떤 직업이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가능하면 인물을 전형적으로 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작품에 참여하든 그게 목표예요. (전작인) '올빼미'에서 인조를 연기했을 때처럼요."

그는 "우리 영화에는 시끄러운 캐릭터가 너무 많았다"면서 "영화의 무게 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그는 배우 경력이 쌓이며 모든 캐릭터를 색다른 모습으로 소화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털어놨다.

최근 본 '야당' 예고편에서 구관희가 이강수에게 "너 야당 한 번 해봐라"라고 권하는 장면은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 (2010) 중 "너 지금부터 범인 해라"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했다고 한다.

유해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라면서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모습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는 몇 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대립, 대통령 선거 등이 나와 실제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구관희의 대사는 시사화 이후 줄곧 화제가 됐다.

유해진은 "근래에 찍은 영화가

아닌데 지금 상황과 묘하게 (담게) 됐다"며 웃었다.

'야당' 출연을 결심한 데에는 소재와 스토리가 신선한 덕도 있지만 황 감독과의 인연도 작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황 감독은 유해진이 막 얼굴을 알리던 시절 조연으로 출연한 '무사' (2001)에서 연출부를 맡았고 연출 데뷔작인 '나의 결혼원정기' (2005)에선 정재영 대신 유해진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다.

유해진은 과거 황 감독에게 '주유소 습격사건' (1999)에서 강패 역으로 등장한 이후 비슷한 역할 제안만 들어온다는 한탄을 늘어놓기도 했다. 황 감독은 이를 기억했다가 '야당'에서 검사 역을 유해진에게 제의했다.

"한동안 '양아치' 역할만 들어와서 '내가 이러려고 연극 무대를 떠나 영화로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연극단원들과 술을 마시는데 마침 텔레비전에 제가 출연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한 선배가 '너 저런 거나 하려고 나왔냐?'고 화도 내셨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역할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영화)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유해진은 지난해 9월 고향이자 배우 생활을 시작한 청주의 청년극장에서 개관 40주년 연극 '열개의 인디언 인형' 무대에 섰다.

그는 "그 연극이 제게는 '인터미



션' 같았다"며 "명절에 온 식구를 만나도 불편한 범인인데 그땐 스트레스나 불편한 점이 조금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사실 서울 (극단·제작사)에서도 연극 출연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

고요. 무대를 떠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청주 무대를 계기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기회만 온다면 그게 어디라고 해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rambo@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MFA 에서

만나요 ▶▶ 봄 이

이벤트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예술 ▶ 영화 ▶ 이벤트 ▶ 커뮤니티 ▶

영화 시리즈

위키드 쿼어:
보스톤 LGBTQ+
영화제

▶ 4월 10일—4월 12일



어린이와 가족 프로그램

4월 봄방학 주간

▶ 4월 23일—4월 26일

특별 이벤트

아트인 블룸

▶ 5월 2일부터 5월 4일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6) 투자 사기(Scam)

판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지?

피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

메이도프 투자사기 (Madoff-style schemes)는 월가(Wall Street)에서 일어난 사건 규모 중 최대의 사기였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무려 \$50 billion이었다. \$50 billion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다란 숫자인지 ‘감’ 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1,000을 소비한다고 가정하자. \$1 billion을 전부 소비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30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3,0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여기에 곱하기 50을 또 해야 한다. 그래야 \$50 billion을 전부 소비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 쥐꼬리만 한 이자라도 붙는다고 가정하면 영원히 소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

한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도 물론 포함한다.

떠나온 고국에서도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투자사기에 투자자가 속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투자폰지(Ponzi)사가 다그려하듯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일부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은다.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소위 ‘똑 부러지게 똑똑한 사람’ 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노년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투자한 일반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투자사기를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유혹적인 단어는 ‘보장(Guarantee)’ 이다. 투자가 무엇인 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

다.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라고 언급했다. 2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자하는데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소중한 자금을 투자한 재정 문서가 어디에서 발행되는가?이다. 메이도프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재정 문서를 메이도프 회사에서 직접 발행했다. 투자자들의 돈을 어디 어디에 투자했다고 거짓으로 재정 문서를 만들었다.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 문서가 제삼자인 다른 곳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자한 돈이 예를 들어 Vanguard나 Fidelity에 직접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재정 문서가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앞으로 직접 발행된다. 그리고 투자한 돈의 움직임을 웹사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항상 알아볼 수 있다

*이해를 못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왜 여기에 투자하는지, 모든 투자경비가 얼마인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한, 두 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투자에서는 ‘우연’ 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도프 투자회사도 어디에 어떠한 식의 투자로 수익률을 내는지 투자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메이도프 투자자들도 그냥 “검은 상자(Black Box)” 에 투자했다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은퇴자금이 전부 날아간 상황에서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이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투자하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 요식 안내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
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
떤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
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
스러웠던 일들은 가슴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의 발자취” 중에서

“세상에 평화 마음에 자비”

봉축법회: 불기 2569년 5월 4일 일요일

제1부: 봉축 법회 (오전 11시)

제2부: 관불의식

보스턴 문수사 연락처:

- 주소: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 전화번호: 781-224-0670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USA TEMPLE
자비와 지혜를 이끄는 도량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한인들이 은퇴하기 좋은 도시 탑5

이 컬럼은 필자가 지난 32년동안 부동산업 계에서 일하면서 은퇴 하시는 분들의 집을 매각한 후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은퇴 후 주택을 찾아 드리면서 쌓은 노하우에서 얻은 정보로 쓰는 글이다.

한인들은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나 한인타운이 잘 형성된 도시를 찾으시는 분들, 골프를 좋아해서 4계절 골프를 치셔야 하시는 분들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 가격과 생활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써 보겠다. 은퇴 후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한인병원에 대한 정보도 더 풀어 알아본다.

1. Atlanta, GA - 아틀란타는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내가 이 도시를 미주 한인들이 리타이어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뽑은 이유를 들자면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집값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아틀란타는 현재 둘루스(Duluth)라는 곳이 제 2의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제 1의 한인 타운은 부포드 하이웨이(Buford Highway) 선상에 있는 곳인데 거의 Duluth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다. 이곳에 중간 집값은 지금 현재 2025년 \$450,000이다. 이 금액이면 방 4개에 화장실 2개반인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새집은 아니고 마당도 거의 없다. 가까운 곳에 H마트, 시온

마트, 아씨마트, 남대문 등 여러종류에 한국시장이 있어 골라가면서 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특히 아틀란타는 한인 노인들이 다니실 수 있는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다. 메디커로 매일 다니실 수 있는 노인 프로그램이 적어도 3-4군데, 한국어로 하는 곳이 있고 매일 라이드가 제공된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저렴한 노인대학도 있다. 이 밖에 현재 아틀란타는 미주에서 남가주, 뉴욕, 달라스 다음으로 한인들이 많은 도시이다. 이 밖에도 한국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있다. 생활비는 미국 중간에서 조금 위라고 할 수 있다.

2. Dallas, TX - 이제 미주에서 세번째로 한인이 많은 달라스를 두번째 순위에 넣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싸다. 한인타운인 캐럴턴(Carrollton)이라는 도시에 중간 집값은 \$430,000이다. 아틀란타와 거의 비슷하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H마트, 시온마트, 코마트, 신촌 등 마찬가지로 골라가면서 다니실 수 있다. 달라스는 팬데믹 후로 급성장한 도시이므로 아직까지는 한인노인들에 프로그램이 그리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다. 제 1에 한인 타운이라는 달라스에 아틀란타와 비슷한 메디커로 다니실 수 있는 정부 제공 한국어 노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몇군데 교회에서도 토요일 하루정도 하는 노인들에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으로 가는 직행 비행기도 있다. 생활

비는 통계상 미국 중간 생활비에 2%정도가 높다고 나와 있다.

3. Los Angeles, CA -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다. 이곳에 가장 큰 장점은 걸어서 한인마켓과 병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아틀란타나 달라스는 차가 없으시면 노인들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장 큰 장점은 각 의료 분야에 한인 의사들이 있어 영어를 전혀 못 하셔도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노인 프로그램들이 있고 잠깐씩 배울 수 있는 학원들 노인 프로그램 등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엘에이 한인타운에 중간 집값은 \$887,000이다. 엘에이는 큰 도시인 만큼 신도시인 아틀란타나 달라스에 비해서 좀 지저분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미주 최대의 한인타운에 걸맞게 한국마켓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H마트, 한남체인, 시온마켓, 한국마켓, 가주마켓, 갤러리아마켓 등 많이 있다. 한국직행 비행기도 미주에서는 제일 많다. 사계절 골프도 칠 수 있다.

4. New York, NY - 미주에서 두번째로 많은 한인이 머물고 있는 뉴욕은 문화 역사 특히 경제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도시이다. 뉴욕은 차가 없어도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몇 개 지역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러싱(Flush-ing)이다. 플러싱에는 많은 한인 마켓과 각 분야의 한인의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도

대도시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플러싱 중간 집값은 현재 \$684,333이다. 그리고 대도시답게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준다. H마트가 시작된 도시인 이곳은 블록마다 H마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인 프로그램도 엘에이만큼 많아서 노인들이 하실 일이 많다. 매일 한국직행 비행기가 있다.

5. Naples, FL - 이제 한인 미국 이민 역사도 100년이 넘었다. 각 사람에 따라 꼭 한인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다. 이곳은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은퇴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일단 사계절이 따뜻해서 사계절 골프를 칠 수 있다. 한인의 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에 수준이 좋고 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리타이어 하고 싶어하는 도시이므로 중간 집값은 \$749,900이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한인 마켓은 전혀 없다. 조그마한 한인 가게를 찾으려면 30분정도에 운전을 해야 하고 좀 큰 한인 마켓은 탬파(Tampa, FL)까지 가야 한다. 또 하나의 단점은 허리케인에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와 환경이 좋아 미국사람들이 은퇴후 거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도시이다. 한국 직행이 없으므로 큰 도시에서 한번 갈아 타야 한다. 생활비가 매우 비싼 층에 속한다.

4월 27일 - 5월 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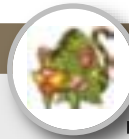
쥐띠 | 수월하게 진행될

● 운수: 서로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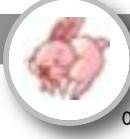
소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후회한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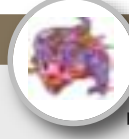
범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주위 사람의 말을 귀담아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 애정: 특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



토끼띠 |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치유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2일 길일, 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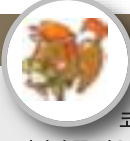
용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7, 3일 길일, 28, 2일 주의.



뱀띠 | 겸손하게 처신해야

● 운수: 진심으로 내 편에 서서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2일 길일, 27,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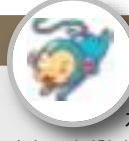
말띠 | 가랑비에 옷 젖듯이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7, 2일 길일, 28, 30일 주의.



양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 써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해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28, 1일 길일, 29,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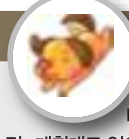
원숭이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음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9, 3일 길일, 27, 30일 주의.



닭띠 |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불같이 뜨거운 열병 같은 사랑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개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가벼운 우발사건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자신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돼지띠 |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전: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마동석 액션과 오컬트의 만남...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악마야 물러나라!"

퇴마사 사론(서현 분)이 한 소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악마를 쫓아내는 구마 의식을 진행한다. 누워 있던 소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지만, 사론은 더 강하게 악마를 몰아붙인다. 그때 구마 의식을 방해하기 위해 악마 숭배자가 사론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사론을 지키는 바우(마동석)가 그를 주먹으로 단숨에 제압한다.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하 '거룩한 밤')는 악마 숭배자들에 맞서온 바우와 사론, 김군(이다윗)이 정원(경수진)의 의뢰를 받아 악마가 깃든 은서(정지소)를 구하는 이야기다.

오컬트와 액션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조합이 먼저 눈에 띈다. 구마 의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마동석의 액션도 선보이는 식이다.

영화는 오컬트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두 장르 간 균형을 잡아나간다. 주연인 마동석에 무게추가 쏠려 자칫 흔한 마동석 표 액션 영화로 비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다. 영화는 결계를 비롯해 구마 의식의 단계를 일일이 설명하고 각 악마의 이름을 열거하는 식으로 오컬트 요소를 세심히 표현한다. 이런 과정에서 마동석이 맡은 바우 외에 퇴마의 축이 되는 사론과 은서의 캐릭터가 돋보인다. 특히 악마에 사로잡힌 은서로 분한 정지소가 강렬한 연기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마동석의 액션은 여전하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 등에서 선보인 대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둔중한 몸집과 복싱에 기반을 둔 주먹 액션은 안정감과 통쾌함을 안겨준다.

마동석은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



타워점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판타지물 아니 폭발력 있고 시원한 액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고 다행히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 표현된 것 같다"며 "범죄자를 때려잡는 영화는 현실에 기반한 영화여서 리얼리티(현실)의 선을 지켜야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펼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다만 영화가 두 장르 간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판타지적 요소가 결합한 마동석의 액션은 '범죄도시'에서 선보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컬트 장르의 측면에서는 지금껏 봐온 다른

오컬트 영화의 장면들과 큰 차별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영화의 주 사건인 은서에 대한 구마 의식이 한정된 장소에서 벌어져, 보다 큰 스케일을 기대한 관객의 눈을 충족시킬지도 미지수다.

각본과 연출은 신예 임대희 감독이 맡았다. 임 감독은 이날 시사회에서 "구마 의식은 조금씩 비틀면서 '위기가 많아지는 영화를 만들자', '엔터테인먼트적인(오락적인) 즐거움을 주자'는 의도로 연출했다"며 "사운드와 편집도 서스펜스에 기반해 시공간을 확장하는 재미와 볼거리를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개봉. 92분. 15세 이상 관람가.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로제 '아파트', 빌보드 싱글 26주 진입...K팝 여가수 신기록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K팝 여성 가수 최장 진입 기록을 경신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APT.)는 '핫 100'에서 전주와 동일한 13위로 26주 연속 진입했다.

이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023년 히트곡 '큐피드'(Cupid)로 기록한 '핫 100' 25주 진입 기록을 뛰어 넘은 것이다.

현재 남녀를 통틀어 '핫 1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노래는 비연속 33주 진입에 성공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8위로 '핫 100'에 데뷔

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연초 반등해 최고 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이 수록된 로제의 솔로 1집 '로지'(rosie)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와 동일한 9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 동료 멤버 제니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 솔로로는 처음 출연해 인상 깊은 무대를 남긴 뒤 순위가 반등했다.

제니의 솔로 1집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는 '핫 100'에 9위로 재진입했고, 이 곡이 실린 1집 '루비'(Ruby)는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7계단 오른 8위를 기록했다.

tsl@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난 4월 15(화)일에는 뉴욕 시티를 맞은
편에 위치한’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담임
김정길 목사)에서 매주화요일 찬양/말씀/기
도<영성 회복 기도집회>가 있다. ‘파키스
탄 선교간증’ 을 부탁받아 부족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왔다. 화요저
녁’ 영성 회복 기도집회 ‘는 성도는 많지
않지만 찬양을 인도하는 김정길 목사와의
광선 찬양사역자, 김여미마 집사의 찬양은
참석을 하면 할수록 영혼을 흔드는 뜨거움
과 감동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 중 찬양을 기
뻐하심을 또 깨닫게 된다. 함께 찬양곡에 박
수를 치며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찬
양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
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
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가라’ 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말씀만 보고 기도
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수
님도 3여 년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
치시고 비유로 삼아 알게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마
태복음 28장의 말씀이다. 말씀만 묵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서’ 라
는 동사가 중요하다. 움직이며 실천하는 것
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몸소 실천해
야 할 일이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
자로 삼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굴복하고, 만왕의 왕, 절대적인 권세
자가 되셨다.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선택
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
라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부탁이며 명령이다. 묵상 가운데
있어보라, 참으로 감사하지 않은가.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은 하
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선포하라는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갈광질광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에서 있어
야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
매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 우리는 우
리의 부모의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도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 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삶에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심점이 되기도 한다.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
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몸소 실천하셨던
사역들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
로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세상 밖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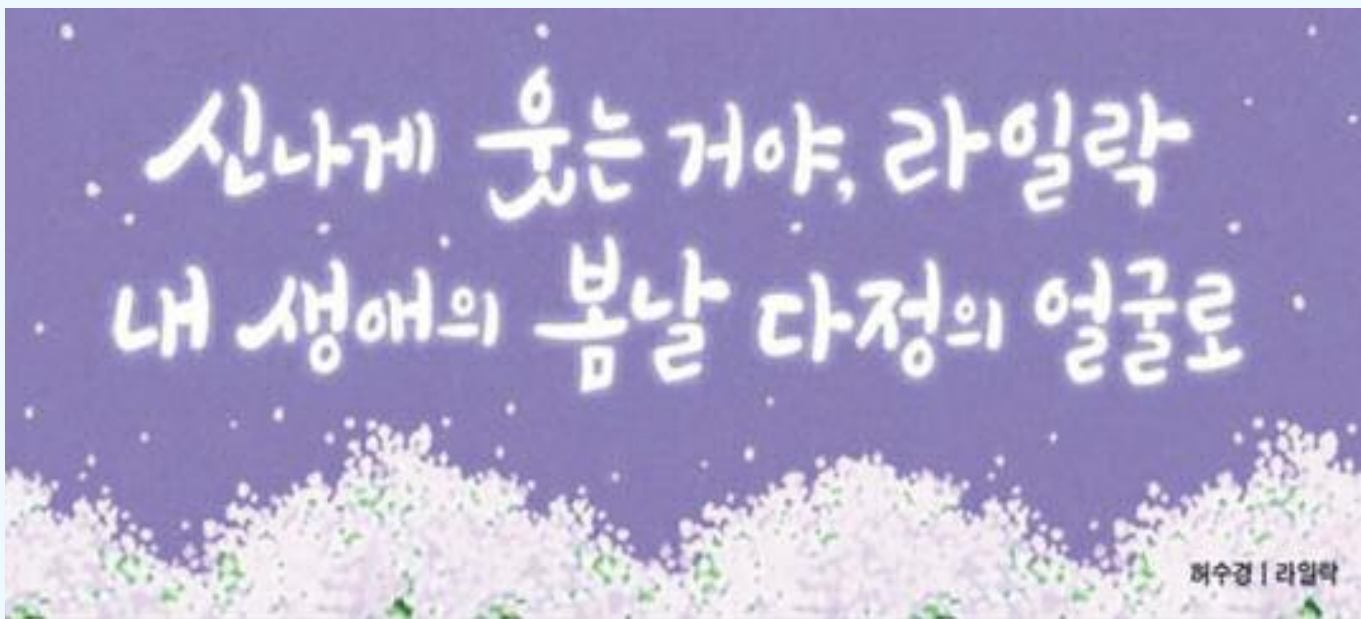
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영어로
보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
자 삼으라고 명하셨다. 제자를 삼는 일은 간
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 28:1) 두 여인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
유라도 뿌려드리려고 간 것이다. 그 새벽에
남자도 무서울 그 시간에 무덤에 가는 일을
생각해 보자. 하필이면 여자였을까?

중동지방에서의 그 시대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을만큼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다.

남, 너를 구분짓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또
한 어떤 상, 하신분에 대한 것도 구분짓지
않으셨다. 모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대 역
전의 출발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광화문 글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시는 다가오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시절
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감흥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광화문 글판이 새로 걸렸다. 새봄에 어울
린다.

“신나게 웃는 거야, 라일락
내 생애의 봄날 다정의 얼굴로”
(광화문 글판, 허수경, 라일락 중에서)

올봄 문안文案의 배경이다. 지나간 일은
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
지라 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

면 활짝 피어나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에 빗
대어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웃
음짓는 라일락 향내가 나는 듯 싶다. 신나
게 웃는 모습이 정겹다.

라일락이라면 내게도 기억하는 노래가
있다. 윤형주가 불렀는데, 제목이 ‘우리들
의 이야기’ 이다. ‘웃음짓는 커다란 두 눈
동자/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라일락 꽃
향기 흠날리던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밤하늘에 별 만큼이나/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들/바람같이 간다고 해도/언제라도
난 안 잊을테요.’

이 노래는 아내를 만났을 적에 자주 흥얼

거렸다. 콧노래나마 부를 적엔 마음도 한껏
향기로웠던 거다.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봄
날이었으니 말이다. 라일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기억, 첫사랑’ 이라 그런가. 라일락과
더불어 우리는 분홍빛 진달래도 즐겼다.

우리집 마당엔 라일락은 없다. 그러나 진
달래 비슷한 철쭉과 개나리도 한껏 피기 시
작했다. 곧 시들해 질텐데 벌들을 열심히 불
러 모을 것이다. 뿔어 나오는 꽃향기가 뒷
마당에 퍼지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에서선 글판이 잘 보인다. 그런
데 글판의 내용과는 생판 다른 일들이 벌여
졌던 모양이다. 새봄을 맞는 시구詩句는 따

뜻하고 고즈넉한데, 자주 집회함성은 요란
했을 터. 이름하여 탄핵찬반 집회라는 거다
. 지난일은 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자 했
는데도 말이다.

라일락이 군집으로 꽃피우는 건 아닐 게
다. 또한 라일락의 꽃말인 첫사랑 역시 때
로 몰려 다닐 수는 없다. 집회 역시 시끄러
울텐데, 광화문 글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광화문광장에 라일락을 심어야 할텐가.
아니면 릴리 (백합)를 심든지. 라일락과 릴
리는 자주 헛갈린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누가 12:27)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5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May 2, 2025 (Friday) 6 PM

Michael's Function Hall

12 Alpha St, Haverhill, MA 01832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광동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무서운 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광동병원 신경과 김 연정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치매의 원인 중 10~15% 정도는 치료 가능한 치매입니다. 수두증, 경막하 출혈, 양성 뇌종양, 갑상샘 질환, 비타민 부족 등 원인을 교정하면 인지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 수면 부족, 우울증, 두부 외상, 낮은 교육 수준 등도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루 2갑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접흡연조차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약 8천 명의 노인을 25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되지 못해 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치매의 최신 치료법과 예방수칙

치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먼저 환자와 보호자를 통해 병력을 청취하고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에는 혈액검사, 정밀 신경심리검사, 뇌 MRI, MRA 등 영상검사 및 뇌파검사를 통해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을 감별하고, 치매로 인한 뇌 손상 정도를 파악합니다. 최근 시행되는 Apo-E 유전자 검사는,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환자의 인지 저하에 대해 평가가 끝났다면,

치매 치료를 시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바탕으로 치매 치료를 보면, 도네페질, 메만틴과 같은 인지 기능 개선제를 우선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약물 치료를 시행한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감소하고, 일상 생활 기능 유지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 증상 외에, 우울, 불안, 망상 등 행동심리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증상에 맞는 약을 함께 사용하여 환자분의 생활을 돕습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운동, 인지훈련, 음악, 미술 치료, 회상요법, 현실 감각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의 일상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인 ‘레킴비(성분명: 레카네맵)’는 2023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부터 초기 치매 단계의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조기 진단 후 약물 사용 시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치료 전망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활습관을 통해 치매 위험 인자들을 줄인다면, 40%까지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생활습관 면에서는 절주와 금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을 떠나, 우리가 몸을 조절할 때에도 뇌를 통해 몸을 조절하기 때문에, 뇌와 신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

치매 조기진단

알츠하이머 유전자와 뇌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 레킴비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입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잘 조절해야 합니다. 사회활동, 취미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과 잘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메모하고, 끝까지 기억하려 해보는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은 암(癌)이 아닙니다. 치매가 진단되면, 환자 자신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스러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노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노년의 건강한 나를 위해 위의 생활 수칙을 지키고, 검진을 통해 뇌건강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해나간다면, 우리는 치매에

방은 물론 더 나아가 행복하고 밝은 노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담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2025년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글짓기 대회' 및 '손글씨 자랑 대회'



일시: 2025년도 5월 3일(토) 오후 2시 (1:30부터 접수시작)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신청 마감일: 4월 27일
- 참가비 / 1인: \$10(회원 학교 학생)
- 참가비 보내실 주소: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281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위의 주소로 보냅니다.
(수표발행: NAKS-NE Chapter로 작성)



글짓기 대회

-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Pre Kinder~12학년 회원교 학생
- 참가방법: 각 학년별 선정된 주제에 맞게 글쓰기
- 시상: Pre Kinder부터 12학년까지 학년별 그룹 편성
 - Pre-Kinder: 참가자 전원 시상
 - Kinder~11학년: 각 학년별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6~11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 주보스턴 총영사상 시상
 - PK~5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회장상 시상
 - 12학년(현 보조교사 활동하는 학생): 장학금으로 시상

손글씨 대회

-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Pre School~12학년 회원교 학생
- 참가방법: 그룹 별 주어진 동시를 보고 예쁘고 멋지게 손글씨 쓰기
- 시상: 참가자 전원 시상

글짓기 및 손글씨 제목: 홈페이지 (www.naks-ne.org) 자료실 참조

문의사항: naks.ne.us@gmail.com

순서

- 1:30 신청 참가자 접수 시작
- 2:00 대회 개회식 및 학년별 주제 선정
- 2:30 글짓기 대회 시작
- 4:00 폐회

시상식: 5월 24일 토요일 1:30p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작 전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후원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코리아





Diamond Cup Annual Charity Golf Tournament



MAY 5TH

MONDAY | 2025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
Canton MA 02021

PREGAME

-  **CHECK-IN: 10:00 AM**
-  **PRACTICE RANGE: 10:00 AM**
-  **LUNCH BOX: 12:00 PM**

GOLF TOURNAMENT

-  **SHOTGUN START: 1:00 PM**
-  **18-HOLE SCRAMBLE – MALE, FEMALE, OR MIXED TEAMS**
-  **3 PAR-THREE HOLES – CLOSEST TO THE PIN WINS A DIAMOND!**

POSTGAME & CELEBRATION

-  **DINNER: 6:00 PM**
-  **AWARDS CEREMONY: 7:00 PM**
-  **DJ AFTER-PARTY: 7:30 PM**

\$200

One Player

---PRIZES---

 **CLOSEST TO THE PIN PRIZES:**

TWO-CARAT DIAMONDS (CVD)

- 2 FOR THE MEN'S CLOSEST TO THE PIN**
- 1 FOR THE WOMEN'S CLOSEST TO THE PIN**

 **TOP TEAMS:**

-  **1ST PLACE: \$1,000**
-  **2ND PLACE: \$800**
-  **3RD PLACE: \$600**

**RAFFLES & AUCTION
LUNCH & DINNER INCLUDED**



**CONTACT US
(860) 304-3530**

Register Here

<https://bit.ly/4i3nQXD>



JUNG KWAN JANG MA 주 정관장 공식 브랜드 스토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가정의 달 특별 프로모션

Promo Period: April 18 - May 11, 2025

EVENT
1

홍삼정 240g

- 1개 구매시 에브리타임 자몽 10포
- 2개 구매시 홍삼정 50g
- 3개 구매시 홍삼정 120g 증정



EVENT
2

에브리타임 &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 30포 구매시 석류홍삼 10포 증정



EVENT
3

\$300 이상 구매시

- 석류홍삼 30포 증정



This offer is only valid for Jungkwanjang members. Therefore, supplies are available in limited quantities and may be terminated early or changed when the product supply is exhausted. Korean red ginseng may help boost one's immunity by increasing immune cells or regulating their functions. Genuine Jungkwanjang products are sold only at Jungkwanjang affiliated stores and designated sales outlets in the Americas. For more information on products, please visit www.jungkwanjang.com or contact us at contact@kgcus.com

증정품 매진 시, 기타 상응 제품으로 대체



Burlington점 Customer Service Desk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Tel) 781-238-0303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